

지난 9월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현재 유럽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사진=파리 시테 대학 교환학생 김민정 씨 제공)

교실을 넘어 거리로,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
학교는 봉쇄되고 교환학생의 일상도 흔들려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이가은 기자 gaeunlee@khu.ac.kr

 # 지난 9월 17일 프랑스 파리 남동부 크레테유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학교를 봉쇄했고 이후 봉쇄 움직임은 전국 수백 개 학교로 확산됐다. 두 달여가 지난 현재는 교사와 노동자,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됐다. 우리신문은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학교 교환학생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번 시위의 배경과 사회적 영향을 짚어봤다.

학교 출입문 봉쇄에 수업도 차질 교환학생 일상 흔들려

"학교는 무기한 봉쇄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중간고사마저 미뤄졌습니다."

이번 학기 프랑스 라로셸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간 조민혁(프랑스어학 2024) 씨는 "교환학생으로 지낼 수 있는 4개월 중 한 달 넘게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며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생활하는 라로셸은 수도인 파리에 비해 규모가 작은 도시에 속하지만, 시위의 영향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조 씨는 "한 달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 출입문을 막아 등교를 저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이 전면 개방 의사를 밝힌 뒤에는 시위가 더 격화됐고, 당일 오후 경찰이 출동해 시위를 진압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시위 중심지인 파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친구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해 듣기도 했다. 조 씨는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라며 "귀를 다치거나 길을 걷다가 최루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프랑스로 파견 간 우리학교 학생이 시위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교류팀은 "2026학년도 2학기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학교 교환학생은 총 20명"이라며 "10월 20일부터 두 차례 안전 안내 메일을 발송했고, 회신한 학생 대부분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학생은 파견 대학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 환경 악화에 누적된 불만 전국적 시위로 이어져

민유기(역사학) 교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전면에 나선 것은 1968년 시위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마뉘엘 바이이(프랑스어교육학) 교수는 "프랑스에서 교육 분야의 근무 여건이 40년 넘게 나빠져 왔다"라며 "2018년 이후 지금은 불평등이 뚜렷해졌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의 핵심 이유로 프랑스 대입 제도인 '파르쿠르쉬프'를 꼽았다. 2018년 도입된 파르쿠르쉬프는 한국 대입 전형인 수시 전형과 유사하게 대학이 학생의 성적과 평가 자료,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정시 전형과 분리된 조기 선발 전형이면서 출신 고교를 가린 채 서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파르쿠르쉬프는 출신 고교를 공개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이이 교수는 "대체로 외곽 학교보다 부유층 학교에 유리하며, 교사가 대체되지 않아 한 학년 내내 교사가 없는 고등학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파르쿠르쉬프의 '입학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 교수는 "2018년 파르쿠르쉬프 제도가 도입되기 전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대입자격시험)만 통과한다면 거주지 관할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었다"며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랜 사회적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이 엄격해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인기 학과에는 학생이 몰려 예산이 부족해지는 불균형이 이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르쿠르쉬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교수는 파르쿠르쉬프가 이와 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정원이 한정된 인기 학과일수록 대학에서 지원자를 가려내면서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프랑스 시위는 교육 환경 개선 요구에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며 확산됐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홍식(정치학) 교수는 "오랫동안 누적된 정부의 구조개혁과 국민 사이의 불협화음, 마크롱 대통령과 의회의 구조로 인한 정치력 부재가 시위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민 교수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연금 부담과 세대 간 자원 배분 갈등까지 더해지며, 상황을 사회·경제적 모순이 폭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위부터 대선까지 현지 상황 주시해야

전문가들은 내년 4월에 이뤄질 대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현재 여론 조사 구도로 봤을 때 극우 후보인 마린 르펜의 우세에 대해 시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안 강화와 이민 규제를 내세우는 극우에 보수화된 노년층과 중산층이 끌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이 교수 역시 "시위로 인해 마린 르펜의 극우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고, 시위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이 교수는 현지의 교환학생들에게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들 옆에 머물지 말고, 위협적인 경찰을 피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사회 전체를 움직인 학생 운동은 1968년 5월, 1986년, 2006년 그리고 지금의 2026년까지 많았지만, 오늘날의 차이점은 경찰의 탄압이 훨씬 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늘 시위가 있지만 지금처럼 규모가 크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프랑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시위·파업 일정은 노동조합 또는 행정 구역별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제교류팀은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하면 파견 대학에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현지 상황, 파견 대학의 학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관 부서와 협의해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이번 시위를 이유로 교환학생 초청 프로그램을 중단한 대학은 없으며, 2027학년도 1학기 프랑스 파견 대학의 교환학생 선발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교류팀은 "향후 현지 상황이나 파견 대학의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